

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을 기초로*

The Effectivenes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 Based on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

도현심(Hyun-Sim Doh)¹⁾

김민정(Min-Jung Kim)²⁾

신나나(Nana Shin)³⁾

박보경(Bo-Kyung Park)⁴⁾

최미경(Mi-Kyung Choi)⁵⁾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16-week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Respected Parents & Respected Children(RPRC). 124 mothers were assigned to two groups, an intervention ($n = 62$) group and a waiting ($n = 62$) group.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fter termination of the preventive interventio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were examined in maternal characteristics (i.e., depression and anger, maltreatment and general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and preschoolers'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in the intervention group had greater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C00001).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은 현장에서는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으로 명명됨.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⁴⁾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⁵⁾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reductions in self-reported negative characteristics. Mothers in the waiting group also reported significant decreases in anger, physical assault and permissiveness/neglect. There wa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levels of aggression in the preschoolers.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 that a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RPRC can be very effective, especially in changing maternal characteristics positively that are crucial to child outcomes.

Key Words :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maternal depression and anger), 양육행동(parenting), 양육효능감과 스트레스(parenting efficacy and stress), 유아의 공격성(preschoolers' aggression).

I. 서 론

아동문제행동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그 예방 및 치료를 돕는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국외에서는 1980년대에 관련 연구들이 시작되어 최근 10-20년에 걸쳐 그 구체적인 효과를 보고할 정도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예 : Breitenstein, Gross, Fogg, Ridge, Garvey, Julion, & Tucker, 2012; Brotman, Gouley, Huang, Rosenfelt, O'Neal, Klein, & Shrout, 2008; Herrmann & McWhirter, 2003; Posthumus, Raaijmakers, Maassen, van Engeland, & Matthys, 2012; Shaw, Dishion, Supplee, Gardner, & Arnds,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종단적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재탄생되고 새로운 연구대상에게 적용되는 식의 장기적 계획 하에 수행되어 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재적 노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문제행동의 중재와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은 가족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생후 초기에 속하는 유아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부모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Breitenstein *et al.*, 2012; Gardner, Shaw, Dishion, Burton, & Supplee, 2007; Posthumus *et al.*, 2012)은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생후 2-3년 정도의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점(Moffitt, 1993; Tremblay, 2000)에서, 유아기가 시작되는 만 3-4세 유아와 그 부모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행동은 IQ만큼이나 그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지표가 되므로(Huesmann, Dubow, & Boxer, 2009) 공격성과 같이 이 시기에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중재적 노력은 예방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공격성에 관심을 두었는데, 아동이 공격성향을 보임과 동시에 어머니가 우울성향이나 분노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Doh, Kim, Choi, Kim, & Cho, 2012; Elgar, Waschbusch, McGrath, Stewart, & Curtis, 2004; Trapolini, McMahon, & Ungerer, 2007). 예를 들면, 우울한 부모를 둔 아동은 그렇지 않은 부모

의 아동보다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Garber & Martin, 2002; Olfson, Marcus, Druss, Pincus, & Weissmann, 2003), 생후 초기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기 종단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유아기 행동문제를 예측하였다(Carter, Garrity-Rokous, Chazan-Cohen, Little, & Briggs-Gowan, 2001).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우울한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민감하지 못한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Miller, 1995). 우울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보고되는 부모의 특성으로 분노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동의 문제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부모의 분노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분노의 수준이 임상적 범주에 가까울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컸으며(Denham, Workman, Cole, Weissbrod, Kendziora, & Zahn-Waxler, 2000), 어머니의 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분노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Garner & Estep, 2001). 학령기와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분노는 아동의 충동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의 정서적인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Elgar *et al.*, 2004).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이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중재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공격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건강 및 성격적 특성 이외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문제와 그 해결 모두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광의의 양육행동에 속하는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maltreat-

ment)(이하, 부당한 대우)나 아동학대는 아동의 공격성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부모행동이다(Belsky & Vondra, 1987). 부모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나 학대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을 포함한 정서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지기능이나 학습 면에서의 문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Brezina, 1998; Solomon & Serres, 1999).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 받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았으며(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Stouthamer-Loeber, Loeber, Homish, & Wei, 2001),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동은 분노나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며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Shin & Choi, 2003). 부당한 대우 혹은 아동학대는 아닐지라도 부모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Park & Ko, 2004), 심리적 통제(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방임·허용적 양육행동(Youn, Kang, & Lee, 2005) 등과 같은 ‘일반적’ 양육행동으로서의 부정적 양육행동 또한 영유아 문제행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양육행동이라는 명칭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양육행동 변인인 ‘부당한 대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비롯한 일반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Kim, 2008; Park, 2000)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내외 예방적 중재 연구들은 부모-자녀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Breitenstein *et al.*, 2012; Doh, Kwon, Park, Hong, Hong, & Hwang, 2003;

Kinsworthy & Garza, 2010; Shanley & Niec, 2011; Stormshak, Kaminski, & Goodman, 2002), 실제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중재를 통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tman, Dawson-McClure, Gouley, McGuire, Burraston, & Bank, 2005; Dishion, Shaw, Connell, Gardner, Weaver, & Wilson, 2008; Gardner, Hutchings, Bywater, & Whitaker, 2010; Russell & Gockel, 2006; Stormshak *et al.*, 2002). 국외 연구의 예를 들면, 만 4세 유아기 자녀의 품행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기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다룬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유아의 품행문제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sthumus *et al.*, 2012). 특히, 2년 후의 조사에서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2-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기술, 아동 행동문제의 중재기술 및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1년 후 조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Breitenstein *et al.*, 2012). 이 외에도 품행 장애의 징후로 예상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 훈련 역시 유아의 부정적 행동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었고(McMahon, 2006),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어머니의 공감적 능력이 향상되고 자녀의 정서행동문제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Jang, Son, & Kim, 2009). 이처럼 앞서 살펴본 유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내외 중재 연구들을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유아의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은 양육효능감을 높이거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는 점(Breitenstein *et al.*, 2012; DeGarmo & Forgatch, 2005; Kim, Doh, Hong, & Choi, 2011; Topham, Wampler, Titus, & Rolling, 2011)에 근거할 때,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예측할 만하다. 만 6세 이상의 방해적 문제행동을 가진 아동의 부모들을 2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6회기로 구성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역기능적 사고와 주관적 문제행동이 개선되었다(Park, 2000). 또한,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몇몇 중재 연구들(Fetsch, Yang, & Petit, 2008; Misri, Reebye, Milis, & Shah, 2006)에서도 양육효능감의 증가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아동발달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실시한 연구(Jang & Yu, 2008)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증진되었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였으며, 2-10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놀이기술을 훈련한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Topham *et al.*, 2011).

이러한 선행 연구 고찰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Doh(2012)의 ‘부모존경-자녀존중(이하, 부존-자존) 부모교육’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공격적 유아를 둔 부모의 우울과 분노,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효

과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1994년에 개발이 시작된 이래 여러 연구들(Doh, 2008; Doh & Yoo, 1996; Doh *et al.*, 2003; Kim *et al.*, 2011)을 거쳐 2012년에 최종 완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된, 기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부존-자존 부모교육(1단계)에 이어, 각 4회기로 구성된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2단계)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실습 프로그램(3단계) 등 총 16회기의 단계적 프로그램이다.

1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부존-자존 부모교육은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일상적인 자녀양육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며, 참가한 부모들이 올바른 자녀양육 신념,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부모교육의 기초적 단계에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모가 바람직한 양육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과정이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지도방법이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부모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국내외 문헌들(예 : Choi, Yang, & Kim, 2004; Joyce, 1995; Sheeber & Johnson, 1994)을 기초로, 인지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완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정서·사회적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우울성향 감소 및 분노조절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을 주목표로 한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Grimshaw & McGuire, 1998)에 근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프로그램으로서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실습 프로그램은 Landreth와 Bratton(2006)의 부모-자녀

관계 치료 프로그램(Child Parent Relationship Therapy : CPRT)을 축약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간의 아동중심적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표로 하였다. CPRT는 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아동심리치료 방법인 놀이치료를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것으로, 부모에게 놀이치료에서 활용하는 기본 기법을 가르쳐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와 직접 놀이 시간을 갖게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 및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Guerney, 2000).

요약해 보면, 예방적 중재 연구로서 본 연구는 만 3-4세 공격적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16회기로 구성된 단계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한 점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DeGarmo & Forgatch, 2005; Gardner *et al.*, 2007; Jang *et al.*, 2009; Shaw *et al.*, 2006)과 같이 주양육자로서의 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재집단 어머니들의 특성, 즉 우울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대기집단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동시에, 유아 특성으로서의 공격성이 감소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가 감소하고,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양육효능감이 증진되고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2>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유아 특성으로서의 공격성이 감소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하였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각각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양 시점 간에 연구변인들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재집단은 주 1회 2.5시간씩 16회기에 걸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대기집단은 연구수행 절차상 연구 종료 시점인 1년 후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대상은 사전조사에 앞서 실시한 기초조사 대상자들 가운데 선정되었다. 4회로 나누어 조사된 기초조사 자료(1,554부)를 분석한 결과, 각 횡수별 유아의 공격성이 평균(1.27~1.28)보다 1표준편차(*SD*)(.32~.34) 이상(1.59~1.62)이고, 어머니의 우울($M = 1.57 \sim 1.66$, $SD = .38 \sim .43$) 및 분노($M = 1.86 \sim 1.88$, $SD = .36 \sim .38$)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M = 1.33 \sim 1.38$, $SD = .27 \sim .30$) 등 세 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가 평균 이상에 속하는 358명의 어머니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유아들의 경우 부모교육을 포함한 중재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Connell, Bullock, Dishion, Shaw, Wilson, & Gardner, 2008)에 근

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124명이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 각 62명씩 배정되었다(기초조사 절차를 포함한 자세한 절차는 뒤의 ‘조사절차’ 부분에서 서술할 것임).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사전조사 시 평균 연령은 46.99개월(표준편차 : 4.67)이었으며, 성별은 남아가 53.2%(66명), 여아가 46.8%(58명)이었다.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27.4%(34명), 첫째가 26.6%(33명), 둘째가 41.9%(52명), 셋째 이상이 0.4%(5명)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각각 37.19세($SD = 4.10$)와 35.12세($SD = 3.62$)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0.0%(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23.8%(29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1.9%(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6.6%(33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9.5%(47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8.5%(22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14.3%(1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41.8%(51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7.0%(33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9.8%(12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 특성과 유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특성에는 우울 및 분노,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포함되며, 유아 특성에는 공격성이 포함된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

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 (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Shin 등(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 및 요인구조의 비교문화적 적용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 감정(5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 및 대인관계(2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정의 경우, ‘기분이 우울했다.’, ‘슬픔을 느꼈다.’ 등이, 긍정적 감정의 경우, ‘행복했다.’,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우, ‘입맛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이,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이 포함된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 감정은 각각 .81과 .87, 긍정적 감정은 각각 .73과 .71,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은 각각 .66과 .69, 대인관계는 각각 .58과 .76이었다. 긍정적 감정을 역채점하여 산출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76과 .77이었다.

2) 어머니의 분노

어머니의 분노는 Chon, Kim과 Yi(2000)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경험 차원인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10문항), 그리고 분노표현 차원인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및 분노통제(8문항)의 5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상태분노의 경우,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고 싶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등이, 특성분노의 경우, ‘쉽게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욕을 한다.’ 등이 포함된다. 분노억제의 경우,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을, 분노표출의 경우에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등을 들 수 있다. 분노통제의 경우, ‘냉정을 유지한다.’,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상태분노는 각각 .92와 .91, 특성분노는 각각 .83과 .87, 분노억제는 각각 .80과 .78, 분노표출은 각각 .79와 .78, 분노통제는 각각 .71과 .70이었다. 분노통제를 역채점하여 산출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9와 .91이었다.

3)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 Hamby, Finkelhor, Moore와 Runyan(1998)의 CTSPC(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를 번역 및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비폭력적 훈육(non-violent discipline, 4문항), 심리적 공격(psychological aggression, 5문항),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13문항), 방임(neglect, 5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요인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폭력과 관련한 3문항(‘목 주위를 잡고 숨이 막히게 했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거나 고의로 야단쳤다.’, ‘칼로 위협

했다.)은 내용적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쳐 어머니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각각 5문항과 10문항,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심리적 공격의 경우, ‘아이에게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집밖으로 쫓아낸다.’, ‘아이를 바보나 게으름뱅이 또는 이와 비슷한 말로 부른다.’ 등을, 신체적 폭력의 경우, ‘아이의 손이나 팔, 다리를 찰싹 때린다.’, ‘허리띠, 머리빗, 막대기 또는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다.’ 등을 들 수 있다.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심리적 공격이 각각 .61과 .78, 신체적 폭력이 각각 .83과 .89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5와 .91이었다.

4)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은 Kim(2003)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im(2003)의 척도는 Schaefer(1965)의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를 수정·변안한 Park(1995)의 척도에 기초한 것으로,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용·방임(10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온정·수용 요인에는,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등이 포함되며, 거부·제재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등이 포함된다. 허용·방임의 경우, ‘하면 안 되는 일도 아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의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온정·수용은 각각 .82와 .84, 거부·제재는 각각 .85와 .85, 허용·방임은 각각 .76과 .82이었다.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Kim(2008)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이하 ‘효능감’, 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만족감(이하 ‘불만족감’, 9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효능감의 경우 ‘나는 아이를 잘 돌보는 것에 대한 내 개인적인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등이, 불만족감의 경우 ‘나는 아침에 아무 것도 해낸 것이 없다는 느낌으로 일어나고, 밤에도 그런 느낌으로 잠자리에 든다.’, ‘부모라는 역할 때문에 나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등이 포함된다. 효능감과 불만족감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효능감은 각각 .68과 .74, 불만족감은 각각 .72와 .72이었다. 불만족감을 역채점하여 산출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0과 .62이었다.

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Kim(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12문항)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의 고통의 경우 ‘아이를 가진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 든다.’ 등이,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아이는 나의 노력에 대해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이 포함된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문항의 예로는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까다롭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요인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부모의 고통은 각각 .84와 .84,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은 각각 .80과 .81,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각각 .79와 .83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90과 .91이었다.

7) 유아의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Crick, Casas 와 Mosher (1997)의 유아기 사회적 행동 척도인 PSBS-P (Preschool Social Behavior Scale-Parent Form) 를 수정·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6문항), 관계적 공격성(6문항), 친사회적 행동(4문항), 우울(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격성에 초점을 두어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두 요인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아이들을 밀치거나 떠민다.’, ‘다른 아이들을 꼬집어서 상처를 낸다.’

등의 문항들이,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다른 아이들이 어떤 아이를 싫어하도록 만든다.’,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가 놀이집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유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체적 공격성은 각각 .85와 .82, 관계적 공격성은 각각 .88과 .88이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 각각 .86과 .87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기초조사, 사전조사,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사후조사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초조사와 사후조사의 경우에는 각각 5천원과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실험실 방문을 통해 응답된 사전조사의 경우에는 5만원을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의 규모가 방대하여 모든 조사 및 프로그램 실시는 3-4개월의 간격을 두고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 기초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소재 91곳의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장 및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동의를 얻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는 2010년 12월 - 2012년 1월에 이루어졌다(421-531명/회). 배부된 1,940부의 질문지 가운데 1,630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349-422명/회)(총 회수율 : 84%), 불성실한 응답(76부)을 제외하고 총 1,554부를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대상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358명의 어머니들(전체의 약 23%)(73-103명/회)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위해 실험실 방문에 동의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155명의 어머니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각 횟수별로 기초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한 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기초조사를 시작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 실시되었다. 사전조사에 동의한 155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약 30분 소요), 어머니들을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 각각 78명과 77명씩 무선으로 구분하였다. 중재집단에 속한 78명의 어머니들 중 14명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대기집단의 추후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기집단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

전조사 시점에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는 각각 64명과 91명의 어머니들이 포함되었다. 중재집단에게는 가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참가에 관해 가족에게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대기집단에게는 어머니들이 동의할 경우 연구 종료 시점인 1년 후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사후조사에서의 탈락률 감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20-30분 동안 통화하여 양육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대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업주부 집단과 취업모 집단 각각 4개 집단으로 구성된 총 8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별 연구대상자수는 5~10명이었다(평균 8명). 각 횟수별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Table 1> Themes and contents of basic parent education program (RPRC)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 duction	Preschool children and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 as a parent • Who is the child? •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the concept of child development
2		Development during the preschool period and the role of par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rinciples of development • Parenting appropriate to the child'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 Sibling relationship
3	Devel- opment	Basic concepts of <i>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i>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enting styles based on warmth and firmness • Basic concepts of mutually respectful parenting
4		Skills of <i>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i> program(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the child's misbehavior • Appropriate praise and punishment
5		Skills of <i>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i> program(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me-out, quality time • Problem-solving through communication, choice-giving
6		Practices of <i>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i> program(1) : Basic living hab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ting habit, wake time and bed time, household chores, sex education
7		Practices of <i>Respected Parents-Respected Children</i> program(2) : Child behavior guid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racteristics, causes, preventions, and solutions of maladjusted behaviors(e.g., shyness, aggression, tantrums, lie)
8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 Guidelines for healthy child development

<Table 2> Themes and contents of emotion regulation program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duction	Connectedness betwee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and the importance of cogn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view of emotion regulation program • Understanding how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are connected •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cognition on emotion and behavior • Controlling negative thoughts by identifying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cognitive distortions
2	Development	Emotion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of emotional variability • Recognizing and expressing one's own emotions • Learning how to regulate emotions
3		Guiding parents toward appropriate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ing the causes of one's inappropriate behavior • Recognizing problems and taking steps forward by evaluating one's behavior as a parent
4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ing connectedness betwee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 Working toward positive parenting • Evaluation and sharing

<Table 3> Themes and conten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practice training program

Session	Stage	Theme	Content
1	Introduction	Basic principles and overview of parent-child interaction training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 Preparing for play sessions and explaining what special play sessions are • Explaining basic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play sessions
2	Development	Play session skills I : Positive responding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cticing reflective responding and esteem-building responses •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encouragement and praise and practicing play session skills
3		Play session skills II : How to respond problem behavi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erstanding limit setting and choice-giving • Practicing choice-giving as a next step after noncompliance • Generalizing limit setting outside play sessions
4	Closing	A home full of love and joy(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ing major topics of previous sessions • Understanding common problems in play sessions • Evaluations and sharing

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주 1회 2시간 30분씩 16주에 걸쳐, 중재집단으로 선정된 8개 집단에 속한 6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각 조사 횟수별로 2집단씩(전업주

부 집단과 취업모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업주부 집단은 오전 10:00-오후 12:30에, 취업모 집단은 오후 7:00-9:30에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머니들의 평균 출석률은 12회기이었다. 오전반과 오후반 각각 연구책임자와 1인의 공동연구자가 진행하였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내용은 표에 제시되어 있다(Table 1, Table 2, Table 3).

4) 사후조사

사후조사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하였다. 중재집단은 16회기를 마친 후, 대기집단은 어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배부,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사전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들 가운데 사후조사에 응답한 어머니들은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각각 63명과 67명이었다. 중재집단의 경우 개인적 사정으로 1명의 어머니가 사후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후조사에 참여한 63명의 어머니들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62명이 본 연구의 최종 중재집단에 선정되었다. 대기집단의 경우, 각 조사 횟수마다 3-8명씩 약 1년 동안 총 24명의 어머니들이 탈락되었는데(26.4%의 탈락률), 그 사유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거부, 이사, 출산 등이었다.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을 동수로 배정하기 위해 67명의 대기집단 중 62명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최종 대기집단에 포함시켰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에 연구변인들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각각에서 부모교육 프

그램 실시 전과 후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별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우울 및 분노,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어머니 특성과 공격성을 의미하는 유아 특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점수, 즉 사전조사 점수와 사후조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에 앞서,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의 연구변인들에서의 사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연구변인들에 있어서 양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92 \sim 1.70, p > .05$).

1. 어머니 특성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서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어머니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

어머니의 우울의 경우, 중재집단에서는 하위요인들 중 우울 감정($t = 2.75, p < .01$)과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t = 2.40, p < .05$) 그리고 전체 우울($t = 2.51, p < .05$)의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우울 감정과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하위요인들 중 긍정적 감정과 대인관계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집단의 경우, 우울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분노와 관련하여, 중재집단에서는 상태분노($t = 2.46, p < .05$) 점수가, 대기집단에서는 분노억제($t = 2.01, p < .05$) 및 분노표출($t = 2.08, p < .05$)과 전체 분노($t = 2.16, p < .05$)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상태분노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 시에 비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분노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재집단의 경우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와 전체 분노에서, 그리고 대기집단의 경우 상태분노, 특성분노 및 분노통제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in maternal depression and anger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i>t</i>
		<i>M</i>	<i>SD</i>	<i>M</i>	<i>SD</i>	
<u>Maternal depression</u>						
Depressed affect	Intervention	1.64	.61	1.41	.53	2.75**
	Waiting	1.51	.46	1.42	.52	1.61
Positive affect	Intervention	2.50	.67	2.67	.60	-1.45
	Waiting	2.68	.66	2.64	.63	.52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Intervention	1.86	.53	1.68	.45	2.40*
	Waiting	1.81	.50	1.71	.52	1.61
Interpersonal	Intervention	1.44	.62	1.35	.48	1.14
	Waiting	1.32	.45	1.30	.56	.36
Total	Intervention	1.83	.47	1.66	.41	2.51*
	Waiting	1.71	.38	1.68	.44	.80
<u>Maternal anger</u>						
State anger	Intervention	1.77	.64	1.54	.50	2.46*
	Waiting	1.63	.53	1.54	.52	1.27
Trait anger	Intervention	2.13	.51	2.14	.48	-.13
	Waiting	2.14	.49	2.04	.55	1.55
Anger-in	Intervention	2.15	.49	2.11	.46	.85
	Waiting	2.19	.44	2.07	.49	2.01*
Anger-out	Intervention	2.07	.45	2.07	.45	-.16
	Waiting	2.16	.46	2.07	.47	2.08*
Anger-control	Intervention	2.72	.32	2.77	.33	-.89
	Waiting	2.71	.38	2.72	.38	-.23
Total	Intervention	2.07	.36	2.00	.33	1.51
	Waiting	2.06	.34	1.98	.36	2.16*

* $p < .05$. ** $p < .01$.

2)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중재집단에서는 심리적 공격($t = 4.67, p < .001$) 및 신체적 폭력($t = 4.13, p < .001$), 그리고 전체 부당한 대우($t = 4.69, p < .001$)의 사후조사 점수가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 및 신체적 폭력과 전반적인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대기집단에서는 신체적 폭력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t = 2.09,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 대기집단에서는 신

체적 폭력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의 경우, 중재집단에서는 하위요인들 중 거부·제재($t = 3.42, p < .01$) 및 허용·방임($t = 3.51, p < .01$) 점수가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스스로 자녀에 대해 덜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온정·수용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기집단의 경우에는 허용·방임 점수만이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t = 2.10, p < .05$). 즉, 사후조사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어머니들도 사

<Table 5> Differences in maternal maltreatment and general parenting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i>t</i>
		<i>M</i>	<i>SD</i>	<i>M</i>	<i>SD</i>	
<u>Maternal maltreatment</u>						
Psychological aggression	Intervention	1.88	.43	1.59	.50	4.67***
	Waiting	1.75	.47	1.75	.56	.01
Physical assault	Intervention	1.61	.36	1.40	.43	4.13***
	Waiting	1.57	.43	1.48	.46	2.09*
Total	Intervention	1.70	.35	1.46	.42	4.69***
	Waiting	1.63	.41	1.57	.46	1.33
<u>Maternal general parenting</u>						
Warmth/acceptance	Intervention	3.02	.33	3.04	.40	-.31
	Waiting	3.10	.32	3.09	.34	.33
Rejection/restriction	Intervention	1.90	.44	1.71	.45	3.42**
	Waiting	1.80	.36	1.73	.39	1.61
Permissiveness/neglect	Intervention	1.93	.34	1.81	.39	3.51**
	Waiting	1.87	.31	1.80	.36	2.10*

* $p < .05$. ** $p < .01$. *** $p < .001$.

전조사 시보다 자녀에게 덜 허용·방임적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온정·수용이나 거부·제재의 경우에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경우, 중재집단에서 하위요인들 중 효능감과 전체 양육효능감의 점수는 사후조사가 사전조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반면(효능감 : $t = -2.48, p < .05$, 전체 : $t = -2.89, p < .01$), 불만족감의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t = 2.43,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높아지고 불만족감은 낮아

져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도 중재집단에서는 하위요인들 중 부모의 고통과 전체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 시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부모의 고통 : $t = 2.96, p < .01$, 전체 : $t = 2.41, p < .05$).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부모로서 경험하는 고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부모-자녀 역기능적인 상호작용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대기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

<Table 6>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intervention and waiting groups

		Pre-test		Post-test		<i>t</i>
		<i>M</i>	<i>SD</i>	<i>M</i>	<i>SD</i>	
<u>Maternal parenting efficacy</u>						
Efficacy	Intervention	2.68	.33	2.87	.66	-2.48*
	Waiting	2.78	.30	2.77	.33	.25
Dissatisfaction	Intervention	2.19	.38	2.07	.40	2.43*
	Waiting	2.09	.34	2.10	.35	-.31
Total	Intervention	2.75	.31	2.90	.41	-2.89**
	Waiting	2.85	.28	2.84	.28	.34
<u>Maternal parenting stress</u>						
Parental distress	Intervention	2.32	.43	2.18	.40	2.96**
	Waiting	2.19	.42	2.16	.45	.88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Intervention	1.74	.42	1.66	.37	1.48
	Waiting	1.64	.35	1.60	.39	.93
Difficult child	Intervention	2.02	.42	1.93	.46	1.73
	Waiting	1.96	.40	1.87	.46	1.57
Total	Intervention	2.03	.34	1.92	.33	2.41*
	Waiting	1.93	.33	1.88	.38	1.51

* $p < .05$. ** $p < .01$.

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전체 점수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2. 유아 특성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에서 각각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의해 측정된 유아 특성으로서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재집단과 대기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공격성의 하위요인들인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과 전체 공격성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중재집단 : $t = -.47 \sim .80, p > .05$, 대기집단 : $t = 1.25 \sim 1.85, p > .05$).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공격적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부존-자존 부모교육을 기초로 완성한 단계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의 우울 및 분노,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구대상을 연구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2개 집단, 즉 중재집단과 대기집단으로 구분한 후, 중재집단을 대상으로 16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의 차이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

의 우울 및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 어머니는 우울 감정과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울과 상태분노가 감소되었으며, 대기집단 어머니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분노가 감소되었다. 어머니의 우울과 관련하여, 이러한 결과는 만 5-12세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상 감소와 양육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증상이 완화되고, 불안감이 감소하였으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 등이 개선된 국내 연구결과(Ha, 2000)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시켜 양육행동을 개선하고자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우울감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음을 보고한 국외 연구결과(Martin & Sanders, 2003)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우울한 어머니들은 영유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보이기 쉬우며(Miller, 1995), 부모의 우울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연결되어 우울한 부모를 둔 아동이 그렇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다양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Garber & Martin, 2002; Olfson *et al.*, 2003)에 근거할 때,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즉, 자녀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정서상태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중재집단 어머니가 자신의 인지와 정서 및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사고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자신의 정서가 자녀양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분노 변화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0-18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 아동발달, 분노조절에 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부모교육을 실시한 결과, 분노조절 수준 및 양육 기술 증진과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감소되었다는 국외 연구결과(Fetsch, Schultz, & Wahler, 1999)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유치원-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분노수준 및 양육스트레스가 약화되었으며 양육효능감이 증진되었다는 국내 연구결과(Kim, 2007)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본 부모교육 과정에 참가한 어머니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분노에서 감소를 보였다는 점은,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분노가 발생하는 원인과 분노가 누적되지 않도록 평소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숙고하고 이러한 분노가 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환경에 대해 수용하고 이해하는 면이 향상된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분노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Conger *et al.*, 2003), 어머니의 분노가 많을수록 유아가 분노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Garner & Estep, 2001),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분노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기집단의 효과, 즉 어머니의 분노 억제 및 표출의 감소는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3개월 간격의 전화 접촉과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와 양육행동에 관한 민감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상태와 관련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및 일반적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양 집단 모두에서 신체적 폭력 점수가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중재집단에서만 심리적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의 경우, 하위요인들 가운데 거부·제재는 중재집단에서만 감소하였고, 허용·방임은 양 집단 모두에서 감소되었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은 양 집단 모두에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부모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한 결과 자녀에 대한 학대행동이 감소되었던 연구결과(Park & Ko, 2004), 위험군 부모들을 대상으로 심리교육적 부모교육(psychosocial parenting)을 실시한 결과 양육행동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Anderson, Fox, & Brenner, 2002),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대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학대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기술을 습득시켜 개선시켰다는 연구결과(Day, Howells, Mohr, Schall, & Gerace, 2008)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호존중적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는 첫 8회기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어머니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방법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육방법으로서 신체적 폭력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위험성과 다정함과 단호함을 강조하는 상호존중적 양육방식의 효과를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일반 아동에 비해 대인 문제 해결력이 낮고,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Chung, 2008; Haskett, 1990)에 근거할 때 주목할 만하다. 즉, 부모의 학대행동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문제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Belsky & Vondra, 1987; Chung, 2008; Haskett, 1990)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신체적 폭력이 대기 집단에서도 감소한 점은 앞서 서술한 어머니의 분노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행동에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개선된 연구결과들(Doh *et al.*, 2003; Jang *et al.*, 2009; Kim *et al.*, 2011; Shaw *et al.*, 2006)과 일치한다. 그리고 단기간의 부모교육 참여 후에 유아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선되고 자녀의 행동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Janz, & Fox, 1998)와 2-10세 자녀의 부모가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 참가 후, 자녀에 대한 공감 증가, 수용적 의사소통 향상,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Lee & Landreth, 2003) 및 부모놀이치료 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공감능력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Kinsworthy & Garza, 2010) 등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유사하게, 자녀양육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발견된 양

육행동 개선과 관련된 결과는 이해할 만하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거부·통제적 양육(Park & Ko, 2004), 신체적 처벌 및 심리적 통제(Hart *et al.*, 1998), 방임·허용적 양육행동(Youn *et al.*, 2005)이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일관된 연구들을 통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존-자존 부모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자녀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낸 만큼, 본 프로그램이 유아 문제행동의 감소를 돕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의 온정·수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머니 자신의 부정적 정서의 이해와 조절 및 폭력적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표출, 측정하기 쉬운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증가와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적인지 살펴본 결과, 중재집단 어머니들만이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증가하고 불만족감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향상하였으며, 부모로서 경험하는 고통을 포함하여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부모교육 참가 후 양육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Martin & Sanders, 2003)와 일치한다. 또한, 방해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고 아동의 방해적 문제행동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Park, 2000)와도 유사하다. 이 외에도 유치원-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분노조절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부모의 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Kim, 2007)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현실치료적 요법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4-5세 유아의 어머니들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Jeong, Han, & Han, 2010)와 유사하다. 또한, 1-5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양육행동을 개선시키고, 어머니의 감정 조절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et al.*, 2002)와도 일맥상통한다. 이 외,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분노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통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된 연구결과(Fetsch *et al.*, 2008; Misri *et al.*, 2006)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행동의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부모 스스로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지지적인 반응태도를 취하고,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대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효능감이 낮은 부모에 비해 더 적절하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Mondell & Tyler, 1981)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어머니가 부모역할 및 양육과정이나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서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양육 상의 어려움이

나 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교육의 참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양육법을 배우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고 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녀양육을 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의 틀을 형성하는 유아기 부모가 자녀양육에 관해 배우고 실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 과정으로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서술한 어머니 특성에서의 변화와 달리, 유아 특성으로 살펴본 공격성의 경우에는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부모의 불합리적인 신념을 변화시켜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합리적인 훈육방법 및 문제해결방법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얻고자 시도하였으나 아동의 문제행동에서는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결과(Joyce, 1995)를 포함하여 걸음마기 아동 대상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증진되었으나, 아동행동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Nicholson *et al.*, 2002)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선행 연구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몇몇 연구들에서 인지행동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McCart, Priester, Davis, & Azen, 2006),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병행한 중재집단에서 유아의 공격성이 감소했고(Doh *et al.*, 2003; Kim, 2008; Walker, Kavanagh, Stiller, Golly, Severson, & Feil,

1998), 부모가 행동주의적 부모훈련을 받은 후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Martin & Sanders, 2003)와는 다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 선정 조건 중에 하나인 유아의 공격성 점수의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양육신념, 지식 및 기술 외에도 부모의 정서조절이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실제와 같은 보다 심화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주로 8-12회기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Herrmann & McWhirter, 2003; Nicholson *et al.*, 2002; Park, Heo, Kim, & Song, 2011)보다 다소 긴 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행동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4개월이라는 기간이 교육대상인 부모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으나, 자녀의 행동변화에 이르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행동변화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간적 간격을 두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부모교육이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공격성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와 양육행동이 아동행동의 중요한 선행 변인이라는 점에서(Kim & Choi, 2007), 본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미친 영향력은 차후 유아의 공격성에서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의 차이만을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시하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조사, 사후조사, 그리고 추후조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를 이용함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또래집단 상황에서의 공격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뿐 아니라 교사 보고나 행동 관찰 등과 같은 다양한 측정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참가자로 선정함으로써 또 다른 부모로서의 아버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부모공동양육(co-parenting)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Kim, Choi, Jeong, & Lee, 2012; McHale, Kuersten-Hogan, Lauretti, & Rasmussen, 2000),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개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996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수차례의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된 독창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부존-자존 부모교

육(Choi, Shin, Gu, Park, Han, & Choi, 2008; Doh, 2012; Doh & Yu, 1996; Doh *et al.*, 2003; Lee & Park, 2010)을 기초로 완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올바른 양육신념, 지식 및 기술을 비롯하여,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과 부모와 자녀 간의 아동중심적 상호작용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및 양육행동을 감소시켰으며,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이후의 시기까지 장기화되기 쉽고, 이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이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Belsky, J., & Vondra, J. (1987). Child maltreatment : Prevalence, consequences, causes, and interventions. In D. H. Crowell, I. M. Evans, & C. R. O'Donnell (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pp. 159-206). New York : Plenum Press.
- Breitenstein, S. M., Gross, D., Fogg, L., Ridge, A., Garvey, C., Julion, W., & Tucker, S. (2012). The Chicago parent program : Comparing 1-year outcomes for African American and Latino parents of young childr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5*, 475-489.
- Brezina, T. (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71-99.
- Brotman, L. M., Dawson-McClure, S., Gouley, K. K., McGuire, K., Burraston, B., & Bank, L. (2005). Older siblings benefit from a family-based preventive intervention for preschoolers at risk fo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581-591.
- Brotman, L. M., Gouley, K. K., Huang, K., Rosenfelt, A., O'Neal, C., Klein, R. G., & Shrout, P. (2008). Preventive intervention for preschoolers at high risk for antisocial behavior : Long-term effects on child physical aggression and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 386-396.
- Carter, A. S., Garrity-Rokous, F. E., Chazan-Cohen, R., Little, C., & Briggs-Gowan, M. J. (2001). Maternal depression and comorbidity : Predicting early parenting, attachment security, and toddler social-emotional problems and competenc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8-26.
- Choi, J. Y., Yang, Y. R., & Kim, J. H. (2004).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arent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1), 1-16.

- Choi, M. K., Shin, J. H., Gu, H. G., Park, S. Y., Han, H. A., & Choi, D. B. (2008).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knowledge level and demand of parent education for adolescents' mothe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227-242.
- Chon, K. K., Kim, D. Y., &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STAXI-K : IV.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7*(1), 33-50.
- Chung, I. J. (2008).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abuse to peer reje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79-95.
- Conger, R. D., Neppel, T., Kim, K. J., & Scaramella, L. (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143-160.
- Connell, A., Bullock, B. M., Dishion, T. J., Shaw, D., Wilson, M., & Gardner, F. (2008). Family intervention effects on co-occurring early childhood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 A latent transition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211-1225.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 Day, A., Howells, K., Mohr, P., Schall, E., & Gerace, A. (2008). The development of CBT programmes for anger : The role of interventions to promote perspective-taking skills.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6*, 299-312.
- DeGarmo, D. S., & Forgatch, M. S. (2005). Early development of delinquency within divorced families : Evaluating a randomized preventive intervention trial. *Developmental Science, 8*, 229-239.
- Denham, S. A., Workman, E., Cole, P. M., Weissbrod, C., Kendziora, K. T., & Zahn-Waxler, C. (2000). Predict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 The role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emotion ex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23-45.
- Dishion, T. J., Shaw, D., Connell, A., Gardner, F., Weaver, C., & Wilson, M. (2008). The family check-up with high-risk indigent families : Preventing problem behavior by increasing parents'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9*, 1395-1414.
- Doh, H. S. (2008). *Respected Parents and Respected Children*. Presented in 2008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Parent Education.
- Doh, H. S. (2012). *The First Parenting Book* Seoul : Knowledge Channel.
- Doh, H. S., Kim, M. J., Choi, M. K., Kim, S., & Cho, S. J. (2012).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anger and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145-164.
- Doh, H. S., Kwon, J. I., Park, B. K., Hong, S. H., Hong, J. Y., & Hwang, Y. E. (2003).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victimized by peers : Focus on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103-121.

- Doh, H. S., & Yoo, M. H. (1996).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pilot parent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7*(1), 39-55.
- Elgar, F. J., Waschbusch, D. A., McGrath, P. J., Stewart, S. H., & Curtis, L. J. (2004). Temporal relations in daily-reported maternal mood and disruptive child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3), 237-247.
- Fetsch, R. J., Schultz, C. J., & Wahler, J. J. (1999).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Colorado RETHINK parenting and anger management program. *Child Abuse & Neglect, 23*(4), 353-360.
- Fetsch, R. J., Yang, R. K., & Petit, M. J. (2008). The RETHINK parenting and anger management program : A follow-up validation study. *Family Relations, 57*(5), 543-552.
- Garber, J., & Martin, N. C. (2002). Negative cognitions in offspring of depressed parents : Mechanisms of risk. In S. H. Goodman & I. H.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pp. 121-153).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dner, F., Hutchings, J., Bywater, T., & Whitaker, C. (2010). Who benefits and how does it work? Moderators and mediators of outcome in an effectiveness trial of a parenting interven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9*(4), 568-580.
- Gardner, F., Shaw, D. S., Dishion, T. J., Burton, J., & Supplee, L. (2007). Randomized prevention trial for early conduct problems : Effects on proactive parenting and links to toddler disruptive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3), 398-406.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 Grimshaw, R., & McGuire, C. (1998) *Evaluating parenting programmes : A study of stakeholder's view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urney, L. (2000). Filial therapy into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2), 1-17.
- Ha, E. H. (2000).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ve mothers of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 Haskett, M. E.(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1*(2), 109-118.
- Herrmann, D. S., & McWhirter, J. J. (2003). Anger & aggression management in young adole-

- scents : An experimental validation of the SCARE program.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6*(3), 273-302.
- Huesmann, L. R., Dubow, E. F., & Boxer, P. (2009). Continuity of aggression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s a predictor of life outcomes : Implications for the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models. *Aggressive Behavior, 35*, 136-149.
- Jang, M. K., Son, K. O., & Kim, S. E. (2009). Analysis of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filial therap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2), 325-340.
- Jang, S. A., & Yu, Y. O. (2008). The effects of active parenting programs on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rear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3), 187-202.
- Joyce, M. R. (1995). Emotional relief for parents : Is rational-emotive parent education effectiv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13*(1), 55-75.
- Jeong, M. S., Han, M. K., & Han, Y. K. (2010).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applied the reality therapy mother's stress-dealing style and child-rearing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9*(2), 229-243.
- Kim, M. J. (2003).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and their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2008). *Development and effects of intervention program for aggressive young children : Focus on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and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J., Doh, H. S., Hong, J. S., & Choi, M. K. (2011). Social skills training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aggressive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in South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6), 838-845.
- Kim, S. Y., & Choi, H. Y. (2007).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1-11.
- Kim, S. R., Choi, H. J., Jeong, K. H., & Lee, Y. L. (2012).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according to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1), 551-575.
- Kim, Y. J. (2007). *Development of an anger control parent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Y. K. (2003).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antisoci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Kinsworthy, C., & Garza, Y. (2010). Filial therapy with victims of family violence :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 423-429.
- Landreth, G. L., & Bratton, S. (2006). *Child parent*

- relationship therapy(CPRT) : A 10-session filial therapy model.* Brunner-Routledge.
- Lee, M., & Landreth, G. L. (2003). Filial therapy with immigrant Korean parents in the United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2*(2), 67-85.
- Lee, S. R., & Park, S. S. (2010). A study on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 1-14.
-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 (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3*, 759-782.
- Martin, A. J., & Sanders, M. R. (2003). Balancing work and family :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s a work-site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8*(4), 161-169.
- McCart, M. R., Priester, P. E., Davis, W. H., & Azen, R. (2006).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training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antisocial youth :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4), 525-541.
- McHale, J. P., Kuersten-Hogan, R., Lauretti, A., & Rasmussen, J. L. (2000). Parental reports of coparenting and observed coparenting behavior during the toddler period. *Internation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220-236.
- McMahon, R. J. (2006). Parent training interventions for preschool-age children. In R. E. Tremblay, R. G. Barr, & R. D. Peters (Eds.),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1-8.
- Miller, S. A. (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6), 1557-1584.
- Misri, S., Reebye, P., Milis, L., & Shah, S. (2006). The impact of treatment intervention on parenting stress in postpartum depressed mothers : A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1), 115-119.
-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Nicholson, B., Anderson, M., Fox, R., & Brenner, V. (2002). One family at a time : A prevention program for at-risk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3), 362-371.
- Nicholson, B. C., Janz, P. C., & Fox, R. A. (1998). Evaluating a brief parental-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82*, 1107-1113.
- Olfson, M., Marcus, S. C., Druss, B., Pincus, H. A., & Weissman, M. M. (2003). Parental depression, child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Medical Care, 41*(6), 716-721.
- Park, J. K. (2000). *A comparison of cognitive-behavioral and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H. J., Heo, J. Y., Kim, Y. H., & Song, H. J. (2011).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ombined program of cognitive enhancement-social skills-parents training program for ADHD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7*(3), 25-58.
- Park, S. Y., & Ko, E. J. (2004). The effect of day-care, child's characteristics and maternal behavior on chil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2), 23-35.
- Park, Y. Y. (1995).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Posthumus, J. A., Raaijmakers, M. A. J., Maassen, G. H., van Engeland, H., & Matthys, W. (2012). Sustained effects of incredible years as a preventive intervention in preschool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4), 487-500.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ussell, M., & Gockel, A. (2006). Parent perspectives on intensive interaction for child maltreatme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2), 101-120.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8*, 413-424.
- Shanley, J. R., & Niec, L. N. (2011). The contribution of the dyadic parent-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 (DPICS) warm-up segments in assessing parent-child interaction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3*(3), 248-263.
- Shaw, D. S., Dishion, T. J., Supplee, L., Gardner, F., & Arnds, K. (2006). Randomized trial of a family-centered approach to the prevention of early conduct problems : 2-year effects of the family check-up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1), 1-9.
- Sheeber, L. B., & Johnson, J. H. (1994). Evaluation of a temperament-focused parent-training program.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3), 249-259.
- Shin, H. Y., & Choi, H. R. (2003).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2), 295-307.
- Shin, S. C., Kim, M. K., Yun, K. S., Kim, J. H., Lee, M. S., Moon, S. J., Lee, M. J., Lee, H. Y., & You, K. J. (1991).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 Its use in Korea-Standardization and factor structure of CES-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0*(4), 752-767.
- Solomon, C. R., & Serres, F. (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 Neglect, 23*(4), 339-351.
- Stormshak, E. A., Kaminski, R. A., & Goodman, M. R. (2002). Enhancing the parenting skills

- of Head Start families during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Prevention Science*, 3(3), 223-234.
- Stouthamer-Loeber, M., Loeber, R., Homish, D. L., & Wei, E. (2001). Maltreatment of boys and the development of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13, 941-955.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Topham, G. L., Wampler, K. S., Titus, G., & Rolling, E. (2011). Predicting parent and child outcomes of a filial therapy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0(2), 79-93.
- Trapolini, T., McMahon, C. A., & Ungerer, J. A. (2007).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adjustment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Child :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3(6), 794-803.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alker, H. M., Kavanagh, D., Stiller, B., Golly, A., Severson, H. H., & Feil, E. G. (1998). First step to success : An early intervention approach for preventing school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6(2), 66-80.
- Youn, J. J., Kang, S. Y., & Lee, B. J. (2005). A study for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relationship of relative factors : Concentrating o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5), 761-770.

2013년 2월 28일 투고, 2013년 5월 31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